

# 광주체고 “전국체전서 학교 명예 드높일 것”

## 제105회 전국체전 선수단 결단식

21개 종목서 총 240명 참가  
금 12·은 14·동 22개 등 목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체고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광주체고는 지난달 30일 학교 도담마루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체고등학교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결단식에는 이정선광주시교육감, 문종민 광주시체육회장, 정희곤 광주체고 운영위원장, 박선우 광주체고 총동문회 부회장, 광주체고 감독교사, 지도자 임원 및 선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광주체고 선수단은 육상 등 21개 종목, 41개 종별에 본부 임원 3명, 학생선수 191명, 감독교사 16명, 지도자 30명 등 총 240명이다.

광주체고는 오는 6일 사전 경기를 시작으로 17일까지 12일간 경남 김해를 중심으로 9개 시군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22개 등 총 48개 메달과 5500점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남자 기계체조 7관왕을 달성한 문건영(3년)이 올해는 금 3개(개인종합·평행봉·철봉)와 은 1개(안마)에 도전한다. 여자 기계체조 김승아(3년)는 도마 은메달과 흥석경(1년)이 도마·평균대 동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역도 여자 +87kg 김재량(1년)이 금 1개(용상)와 은 2개(인상·합계)를 노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체고 선수단이 지난달 30일 학교 도담마루에서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다.

레슬링에선 자유형 97kg 이재혁(2년)과 여자자유형 76kg 임선교(3년)가 금빛 굴리기에 나선다. 자유형 57kg 박인성(2년)과 자유형 125kg 김부찬(3년)은 은메달을, 그레코로만형 55kg 강승민(3년)은 동메달을 목표로 한다.

육상에서는 나현주(3년)가 400m 금메달을, 고은정(3년)이 높이뛰기 은메달을 바라본다. 110m허들 박태연(2년)과 높이뛰기 박준의(3년)는 동메달을 노린다.

여자 조정은 금 3개와 은 1개에 도전한다. 더블스킬 김승현·김정민(3년), 경량급 더블스킬 서에서(3년)·김지선(2년), 싱글스킬 김승현이 금메달을, 쿼드러플스

킬 서에서·김정민·김지선·김별(1년)이 은메달 획득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여자 핀수영 홍수진(3년)은 표면 200m 은메달과 표면 400m 동메달을, 김지은(2년)이 표면 100m 은메달과 표면 50m 동메달에 도전한다.

여자 수영의 양윤지(2년)는 개인혼영 200m와 개인혼영 400m에서 각각 동메달을 노린다.

유도 종목에선 정재원(3년)이 은메달을, 이유경(3년)이 동메달에 각각 도전하고, 복싱 헤비급 민혁(2년)과 라이트급 손희우(2년)가 각각 동메달을 바라본다. 사격 단체전 오운우(3년)·김세현

(2년)과 개인전 조은준(1년)도 동메달이 목표다. 자전거 서은혜(3년)는 여고부 1랩 독주 동메달을 노린다.

에어로빅합창 종목에선 금 1개(3인조)·은 1개(5인조)·동 1개(합합단체)를 목표로 하고, 펜싱 여고부 에베·근대4종 남자 릴레이·볼링 5인조는 동메달을 목표로 삼았다.

사전경기로 진행되는 태권도에선 라이트급 이정후(3년)가 금빛 발차기를, 헤비급 이재희(3년)가 동메달 획득에 나선다.

광주체고는 지난해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금 20·은 9·동 16개 등 총 45개 메달과 종합점수 6901점을

획득하는 성적을 거뒀다. 이는 광주시 선수단이 획득한 총 3만2591점의 21.2%에 달하는 성적이다.

육철수 광주체고 교장은 “이번 전국체전을 대비해 지난 동계훈련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왔고, 광주 스포츠 과학센터와 연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바탕으로 각 종목별 강화 훈련을 열심히 매진했다”며 “남은 기간 컨디션 관리와 부상 예방에 만전을 기해 예상목표 이상의 결과를 달성해 지역 체육 발전은 물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 광주FC U15, 광주축구협회장기 우승

### WKU U15와 결승전서 2-0 승

프로축구 광주FC U15 선수단이 제7회 광주시축구협회장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광주FC U15는 지난달 29일 광주 보라매 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WKU U15를 2-0으로 이겼다.

광주FC U15는 동료를 활용한 연계,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이드 플레이로 경기를 주도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후반 들어 높은 수비라인으로 미드필드 지역을 장악함과 동시에 강력한 압박을 선보였으며 후반 22분 공격수 박세환(2년)의 페널티킥 득점과 경기 종료

직전 미드필더 유지훈(2년)의 날카로운 역습 썬킥골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임준형 광주FC U15 감독은 “무더운 날씨와 연달아 이어진 경기로 인해 컨디션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근성과 투지가 우승을 만들었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이 소중한 우승컵을 성장의 밑거름이라 여기고 더 발전해나가는 광주FC U15 선수단을 만들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우승을 차지한 광주FC U15는 감독상(임준형 감독)을 비롯해 최우수선수상(정이사), 공격상(박세환), 골키퍼상(안하람)까지 각종 개인상도 휩쓸었다.

한규빈 기자

## 광주시체육회, 2024 스포츠과학 코칭 아카데미 공동유치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과학원이 주관하는 ‘2024 스포츠과학 코칭 아카데미 운영사업’ 공동유치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희대학교가 총괄하며, 지역에서는 전남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공동참여한다. 산업체로는 17개 시·도 체육회중,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과 부산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가 참여하는 산학연 융복합 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내용으로는 스포츠과학 아카데미 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 고도화와 스포

츠과학 코칭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이다. 광주에서는 오는 11월 8일 국내 최고의 스포츠 과학 전문가가 현장 방문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도자, 체육 전공 학생들에 대한 전문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전국 최초로 우리 지역에서 스포츠과학 코칭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스포츠과학연구원을 통한 산학연 R&D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정규 시즌 우승’ KIA, 유종의 미 거뒀다

### NC와 최종전서 10-5 역전승 단일 시즌 최다 87승 타이 기록 김도영, 2차 최다 득점 타이 기록



정규 시즌 우승과 한 국시리즈 직행을 확정지은 KIA타이거즈가 최종전에서 NC다이노스를 상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며 ‘V12’ 전망을 밝혔다. KIA는 구단 단일 시즌 최다 승리 타이 기록을 썼고, 김도영은 아시아 프로 야구 단일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달성했다.

KIA는 지난달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최종전에서 10-5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KIA는 올해 정규 시즌을 87승 2무 55패(승률 0.613)로 마무리했다.

KIA가 정규 시즌 87승 고지에 오른 것은 구단 단일 시즌 최다 기록으로 열한 번째 우승을 이뤘던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17년 당시 KIA는 87승 1무 56패(승률 0.608)를 기록한 바 있다.

KIA는 이날 경기 1회초 2사 만루 위기에서 선발 에릭 라우어가 도태훈에게 2타점 적시타를 내주며 선제 실점, 0-2로 끌려갔으나 2회말 김호령의 1타점 내야 땅볼, 박정우의 1타점 적시타, 김도영의 1타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지난달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최종전 2회말 2사 2루에서 윤도현의 내야 안타에 3루수 김휘집의 송구 실책이 겹쳐 홈을 밟으며 아시아 프로 야구 단일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달성한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점 적시타, 상대 폭투와 실책으로 5-2가 됐다.

김도영은 상대 실책이 겹치는 행운이 따르며 올 시즌 143득점 짜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 프로 야구 단일 시즌 최다 기록으로 1950년 NPB(일본 프로야구) 센트럴 리그의 쇼치쿠 로빈스 소속이었던 고즈루 마코토에 이어 두 번째다.

KIA는 6회초 1점을 내줬으나 6회말 대거 3점을 뽑아내며 8-3으로 격차를 벌렸다. 이어 8회초 무사 1·3루에서 김민주가 한재환에게 땅볼로 아웃 카운트와 실점을

맞바꾼 뒤 박시원에게 적시 2루타를 내주며 다시 8-5 추격을 허용했으나 8회말 선두 타자 윤도현의 좌월 솔로포와 오선우의 적시타가 나오며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 10-5 승리를 확정지었다.

윤도현은 데뷔 첫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의미를 더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스프링 캠프 막바지 옆구리 통증으로 이탈한 뒤 개막 직후에는 퓨처스리그에서 손가락 골절을 당했던 윤도현은 지난달 21일 1군 등록돼 다섯 경기에서 타율 4할9리를 기록하며 맹활약을 이어왔다. 한규빈 기자